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호야천변 2길 6번지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개항 '가속도'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이 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안)과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토부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공기단축 방안 반영·기재부도 예산 지원 밝혀
지자체·관련부처 협의 거쳐 내달 중 확정·고시키로... 활주로 기준 구역 지정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과 개항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기획재정부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혀 공항건설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6차(2021~2025) 공항개발종합계획(안)에 새만금 국제공항 공기단축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반영시켰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이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이후, 후속대책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행하는 단기방식이 적용되도록 지속해서 정부에 건의해 온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송하진 도지사는 주무장관인 김현미·노형욱 전·현직 장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국토부를 수시로 찾아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전북도는 새만금 국제공항 추진방식이 설계와 시공을 일괄 수행하는 단기 방식으로 적용되면 설계기간을 단축해 조기 착공이 이뤄져 2022년 하반기

착공 2028년 개항인 당초 국토부 계획보다 1년이상 개항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지난 4일 전남도청에서 호남·제주지역과의 예산협의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안도걸 제2차관이 새만금 국제공항 등 전북의 현안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 지원 방침을 밝혀 국제공항 조기 건설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하진 지사는 "사업추진 방식은 현재 추진 중인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국토부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에서 결정된다"며 "앞으로도 정치권과 함께 공기단축 방안(단기 발주)이 최종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국제공항과 관련한 이번 국토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에 반영된 내용은 ▲적기 완공을 위한 공기단축방안 적극 검토, ▲새만금 개발계획과 연계 지역개발 활성화에 기여, ▲권역 내 항공요차리를 가능하도록 시설규모확충 및 배치계획 마련, ▲개발계획 구체화와 연계교통망 계획(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동서 및 남북도로, 새만금항 인입철도

새만금항 등)의 차질없는 추진 등이 다. 국토부는 오는 28일까지 지자체 및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중에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에 포함돼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과 '사업계획적정성검토'를 거쳐 현재 기본계획 수립과 전라환경영향평가를 추진 중에 있다. 수립 중인 기본계획에는 2019년 사업 적정성 검토시 보다 여객터미널, 계류장 1대 증가(4대 → 5대), 주차장 용량 등 총 건축면적이 대폭 증가하는 것으로 변경 검토 중에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장애 확장을 고려해 B급 대형 항공기의 취항이 가능하도록, 활주로 3,200m 기준으로 공항구역에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는 도민들의 항공이용 불편 해소와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은 물론,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 도약 목표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민간 국제공항인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이 절실하다는 필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는 상태다. /유호상 기자

암 완치 경험자 새 희망터 만든다

경진원, 일자리 지원 나서
도내 기업 취업·근속 시
최대 50만원 지원금 지급

전라북도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경진원)은 최근 전북지역 암 생존자 통합지원센터와 함께 암 완치 경험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지원은 총 3단계를 통해 이루어지며 ▲1단계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스킬 등 취업 역량강화 교육 ▲2단계 구직활동을 위한 최대 50만원 지원금 지급 ▲3단계 근로자 심리안정 교육으로 구성됐다. 이에 더해 도내 기업에 취직해 근무 시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암을 극복해낸 암 경험자 433명을 직접 만나 확인한 한 사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24%는 암 진단 후 직장을 잃었고, 20.7%는 고용주나 동료로부터 차별을 겪었다. 이는 암 완치 경험자 4명 중 1명이 실직을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자 본인이 암에 대한 편견을 가진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암을 불치병으로 여긴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3.1배 더 높은 것으로 연구 결과도 있다. 전북도일자리센터 관계자는 "요즘 암 완치 경험자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임팩트가 컸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번 도교육청과 태권도 메달리스트 인교동 또한 그렇다"며 "도내 구직활동을 희망하는 암 완치 경험자들이 지원을 통해 그들의 새로운 삶이 밝게 빛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암 완치 경험자들의 일자리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일자리센터 포털(www.1577-0365.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다면 대표번호(1577-0365) 또는 담당자(063-280-1008) 유선 문의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호우 피해 익산 상가 재해구호기금 지원

전북도, 총 4억200만원... 상가당 200만원 지급

전북도가 지난 7월 5일부터 8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본 익산 상가에 총 4억2000만원의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피해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아픔을 덜어주고 일상 회복을 응원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봤고 익산시장이 피해사실을 확인한 상인이다. 또, 중소기업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에 앞서 익산시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중호우 피해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신고를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조사결과 피해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에게 상가당 200만원을 지원하게 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전주시, 외지인 부동산 불법거래 78건 적발

편법증여 의심 51·거래신고법 위반 26·소득세법 위반 1건 등

전주시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외지인들의 투기를 막기 위한 특별조사를 통해 편법으로 증여하거나 실제 거래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위반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단장 백미영)은 최근 부동산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외지인들의 불법거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7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2019년 9월 이후 가격 급등시기 외지인 거래물건 ▲최근 외지인 매수세 증금이 포착된 공사기력 1억 이하 아파트 거래물건 등 740명의 외지인이 거래한 건이었다.

이 가운데 ▲편법증여 의심 51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26건 ▲소득세법 위반 1건 등 총 78건이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세부적으로 매수자명 미런시 출처가 불명확하거나 가족 또는 제3자로부터 자금 차입 관련 거래내역을 소명하지 못한 편법증여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어 실제 금전거래가 없었지만 신고대상이 아닌 물건에 대해 당사자간 직거래한 뒤 매매 신고하는 등 거래신고법 위반 사례, 지연신고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 실제 거래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다중계약 사례 등이 뒤를 이었다.

시는 이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28명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하고, 51명은 편법증여 의심으로 관한 세무서에 통보한 상태다. 나머지 위반행위도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박영봉 시 생태도시국장은 "외지인 이 아파트 거래시장에 지속적으로 진입하면서 지난해 말부터 가격 급등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특히 최근에는 1억 이하 아파트 시장에서 외지인이 대거 유입돼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시장 불안정이 포착되고 있다"면서 "시민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외지인 불법 거래에 대해 시장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